

서울研 “자원회수시설 현대화, ‘민관협력’으로 추진해야”

서울 회수시설 4곳 평균 23년 사용 내구연한 넘겨 효율성 떨어지고 세수감소 등 재정여건 악화 예상 “적어도 한 곳은 민관사업 추진을”

서울시의 재정 여건을 감안해 노후화된 광역 자원회수시설 현대화를 민관협력 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서울연구원이 펴낸 ‘서울시 광역 자원회수시설 현대화 재원조달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의 광역 자원회수시설 평균 사용 기간은 23년으로 모두 내구연한을 초과해 가동률이 낮아졌다.

폐기물 중간 처리시설인 자원회수시설은 생활폐기물을 태워 에너지를 회수하고 처리 후 잔재물을 최종 처분시설인 매립지로 보내는 역할을 한다. 서울에서는 양천·노원·강남·마포 총 4개 광역 자원회수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수변 광역자원회수시설 개념도(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서울시)

양천자원회수시설은 1996년, 노원시설은 1997년, 강남시설은 2001년, 마포시설은 2005년부터 가동을 개시했다. 현재 4개 시설 모두 환경부가 제시한 내구연한(15년)을 훌쩍 넘기면서 운영 효율성이 떨어진 상태. 노원자원회수시설

의 가동률(용량 기준)이 70.6%로 가장 낮고, 마포시설은 75.7%, 양천시설은 84.6%, 강남시설은 89.2% 수준이다.

또 서울의 광역 자원회수시설 중 강남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3곳은 적자로 운영되고 있었다. 서울시 광역 자원회

수시설에서 폐기물 1t을 태울 때 발생하는 손해는 평균은 1만7000원이었다. 열 관련 설비 차이와 열 판매처의 차이로 시설별 운영 수지 편차가 컸는데, 폐기물 1t을 소각할 때 강남시설은 1만1900원 이익인 반면, 나머지 시설은 최대 5만8000원까지 손해가 났다.

지출 항목별로는 유지보수비가 37.5%로 가장 많았다. 이어 비정산비(23.8%), 폐기물처리비(17.6%), 유틸리티비(11%) 순이었다.

연구진은 “서울의 광역 자원회수시설은 수선 등으로 인해 가동률이 낮아지고 있다”면서 “장래 폐기물 소각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현재 설비 용량이 부족하다”고 시설 현대화 필요성을 설명했다.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와 발생지 처리 원칙 도입 등 정책 여건 변화로 오는 2027년까지 서울의 생활폐기물 총발생량은 2020년 대비 8.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진은 고령화에 따른 노동 가능 인구 감소와 재정 지출 증가, 저성장,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인한 세수입 감소 등 서울의 중장기 재정 여건이 악화할 것으로 보고, 광역 자원회수시설 현대화 사업을 민관협력을 통해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서울시는 광역 자원회수시설 현대화 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전 절차를 거친 뒤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시설별 현대화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연구진은 “재원 부담 절감과 시설 운영 수지 측면에서 서울시는 아직 재원 조달 방안이 확정되지 않은 3개 광역 자원회수시설(양천·노원·강남) 중 적어도 한 곳을 민관협력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민관협력 사업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리스크 배분과 관리 원칙을 정립하고, 행정 조직의 사업관리 거버넌스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공유 수업자료 다운로드 많으면 ‘인센티브’

교육부, 자율적 수업 혁신 지원방안 다운로드 100회, 교사에 1만원 포인트 ‘질문하는 학교’ 120개교 운영키로

앞으로 양질의 수업자료를 공유한 교사들은 동료 교사들의 내려받기 건수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교육부는 올해 처음으로 ‘질문하는 학교’ 120개교를 운영하고 학생의 질문역량을 효과적으로 길러주는 교수학습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등 ‘교실 혁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이러한 내용의 ‘자율적 수업 혁신 지원방안’을 추진한다고 11일 발표했다. 먼저 교육부는 ‘함께학교’ 플랫폼에 올해 하반기 ‘수업 나눔 광장’을 신설한다. 교사 개인 또는 교사연구

회가 만든 양질의 수업·평가 콘텐츠를 전국적으로 공유하고, 수업·평가에 대한 고민을 나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수업 나눔 광장’은 교사가 시간간 제약 없이 자발적으로 수업 나눔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교사가 제작한 수업 자료를 탑재하고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아울러 새로운 수업 방법을 제안하는 수업 영상을 실시간 재생(스트리밍)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특히 양질의 수업 자료를 제공한 교사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다운로드(내려받기) 누적 건수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지급한다. 다운로드 100회당 맞춤형 복지포인트 1만원에 상응하는 1마일리지를 지급한다. 포인트로 바꾸려면 적어도 10마일리지

(다운로드 1000회)를 쌓아야 한다.

다만 아무리 인기를 끌어도 500만원에 상당하는 500마일리지(다운로드 5만회)까지만 지급한다. 다운로드 횟수에 따라 골드·실버·브론즈 뱃지도 부여한다.

아울러 전국 단위 교사연구회 총 200개를 뽑아 단체당 500만~1500만원을 지원한다. 교사들이 함께 연구하고 수업 혁신을 노력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올해 ‘질문하는 학교’를 지정해 운영한다. 초등학교 54개교, 고등학교 36개교, 중학교 29개교 등 120개교다. 현장에서 학생들이 먼저 질문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모델을 정부에 제안하면 연말에 우수한 학교를 표창한다.

/이현진 기자 ihj@

인천시, 2군·9구 확대출범 준비작업 시작

2026년 7월 인천 행정체제 새 출범

2군·9구로 확대 출범하게 된다.

오는 2026년 7월 제물포구, 영종구, 서구, 검단구가 새롭게 출범할 예정인 가운데, 인천시가 새로운 행정체제 출범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에 들어간다.

인천광역시는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법을 제정에 따른 ‘자치구 출범 준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지난 1월 9일 국회 의결과 1월 30일 정부의 공포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법률은 현 중구와 동구를 제물포구와 영종구로 통합·조정하고, 서구를 서구와 검단구로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법률 시행일이자 민선 9기가 시작되는 2026년 7월 1일부터 인천시 행정체제는 지난 1995년 3월부터 유지돼 온 2군(郡)·8구(區)에서 자치구 한 개가 늘어

시는 이번 출범 준비 기본계획을 통해 행정지원, 재정지원, 기반시설(인프라) 구축 등 세 분야로 나눠 준비할 계획이다. 또, 올해 하반기 중 출범 준비 전담 조직을 설치·운영해 체계적인 준비와 시 관계부서 및 해당 구와의 협조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새로운 자치구가 원활히 출범할 수 있도록 3단계에 걸쳐 준비작업을 차질 없이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행정지원 분야는 새로운 자치구에 대한 조직 설계 및 인사 운영, 법정동·행정동 조정, 자치법규 정비, 지방공공기관 통합·조정 지원, 민간사회단체 통합·분리 지원, 사무·재산 인계 인수 지원 등이다. 재정지원 분야는 재정 조정 방안 마련, 예산 편성 및 결산, 자금 운영, 지방세 등 승계 및 처리, 금고 지정 등이다.

/인천=김대의 기자 dykimi@

의료데이터 연구 프로젝트 참가기업 모집

서울시-복지부, 유망 바이오기업 연결

서울시가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등 ‘전국 43개 의료데이터 중심병원’과 의료데이터를 활용해 연구, 서비스를 개발하길 원하는 ‘서울의 유망 바이오기업’을 연결한다.

서울시는 이달 12일부터 내달 3일까지 ‘의료 데이터 중심병원-서울 스타트업 공동연구 프로젝트’에 참가할 바이오·의료기업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사업 대상은 서울 소재 바이오·의료 분야 10년 이내 기업이다.

시는 바이오기업의 데이터 수요와 병원의 데이터 매칭 과정을 거쳐 총 7개 기업을 선발한다. 참가 희망 기업은 서울바이오허브 누리집(www.seoulbiohub.kr)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최종 선발된 7개 기업에는 의료데이터 가공, 연구개발 및 컨설팅 지원을 위해 최대 5000만원을 지급한다.

/김현정 기자

서울 양곡도매시장 이달부터 현대화 공사

서울시는 양곡도매시장 현대화를 위한 설계를 마치고 이달부터 신축 공사에 들어간다고 11일 밝혔다.

양곡도매시장은 기존 부지에서 약 1km 떨어진 양재동 229-7번지에 건립된다. 시는 내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건축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양곡도매시장은 부지면적 8426㎡(연면적 9521㎡)에 지하 2층~지상 2층 규모로 만들어진다. 지하 1층에는 양곡을 자연 건조·보관하지 않고 최적의 조건에서 관리할 수 있는 ‘저온 저장고’가 들어선다.

/김현정 기자

오늘의 날씨

3월 12일 (화) 음력 : 2월 3일

수도권 날씨 5~10°C

운중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지역별 날씨: 인천 3/11, 동두천 3/10, 가평 3/11, 파주 3/10, 서울 5/10, 양평 4/10, 수원 6/10, 용인 6/10, 평택 3/9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바이든, ‘낙태’ 말 못하나…국정연설 ‘재생산 자유’ 두고 뒷말 /사진 뉴시스
▲“美中갈등 속 중국어 배우러 대만 간 외국인 유학생 사상 최대”

▲이집트, IMF와 협상으로 세계은행 등 외자 200억달러 도입길 열려
▲일본 작년 4분기 GDP 성장률 0.1%…2분기 만에 플러스 전환



▲양회서 더 뚜렷해진 ‘시진핑 1인체제’…‘당정분리 종언’ 공식화 /사진 뉴시스
▲포르투갈 총선, 중도우파 연합 ‘신승’…극우 ‘약진’